

蘭學, 일본 노벨상의 계보학적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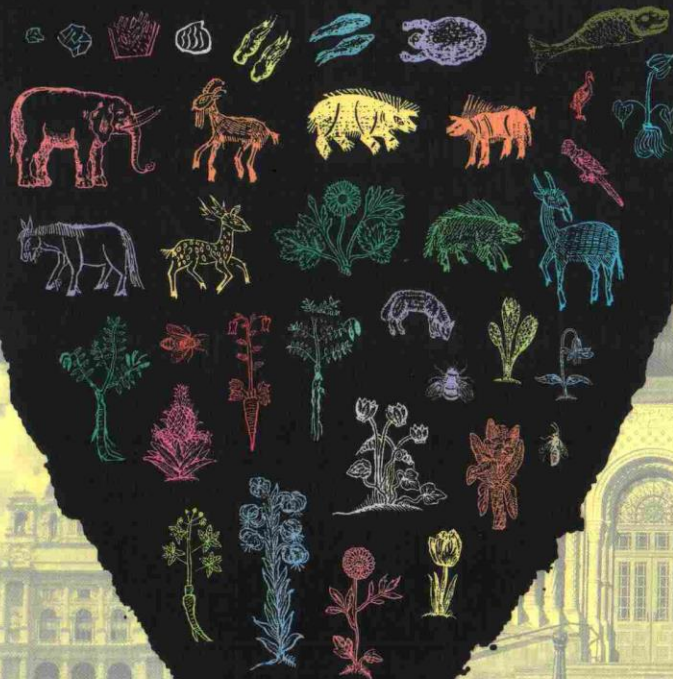
이 종 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열대학연구소

I. 왜 이 책을 썼는가?

파리식물원에서 데지마박물관까지

과학사가 이종찬의 유럽·일본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탐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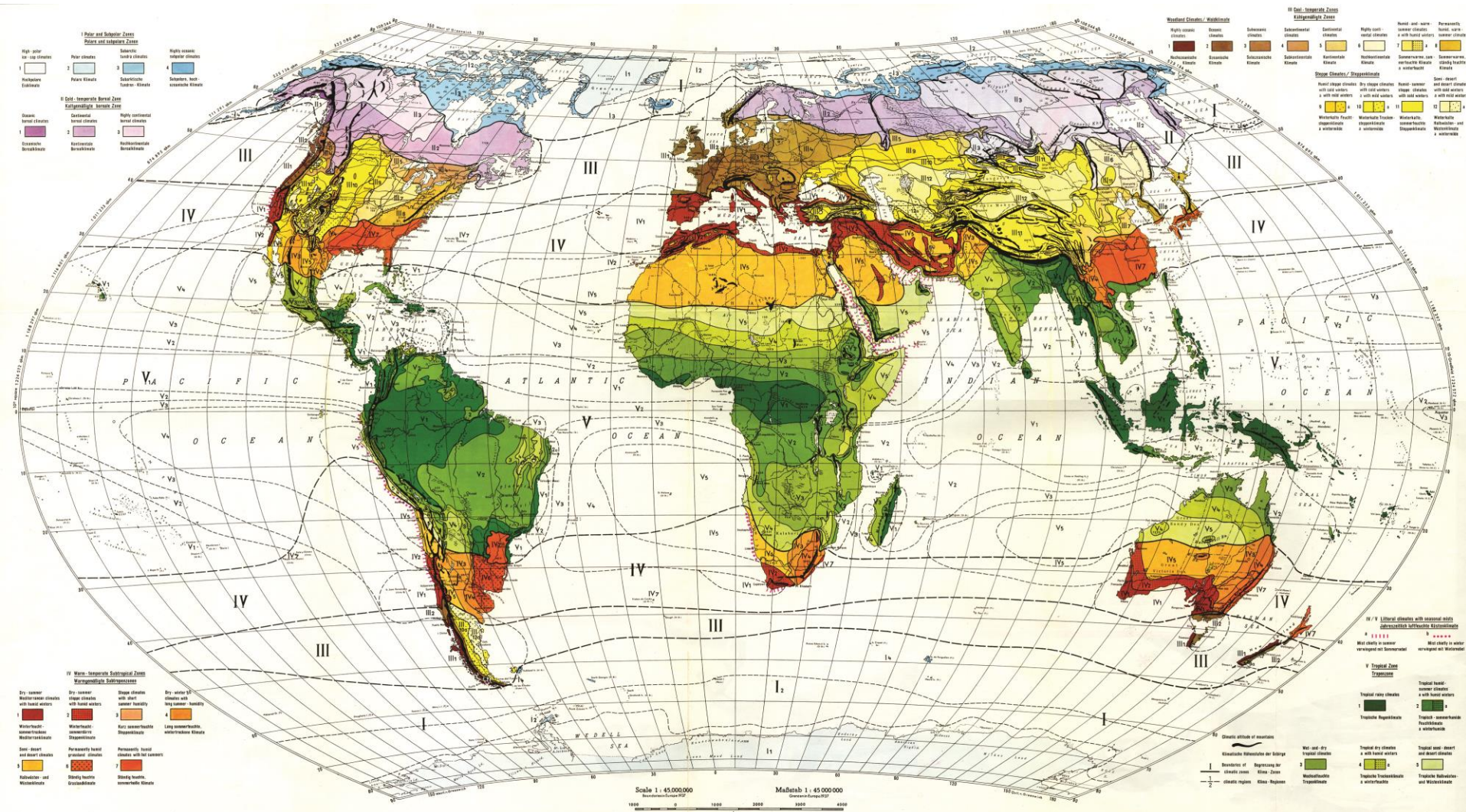


Japan in the West, Japan in the Tropics

서구의 어디를 가더라도

熱帶의 어디를 가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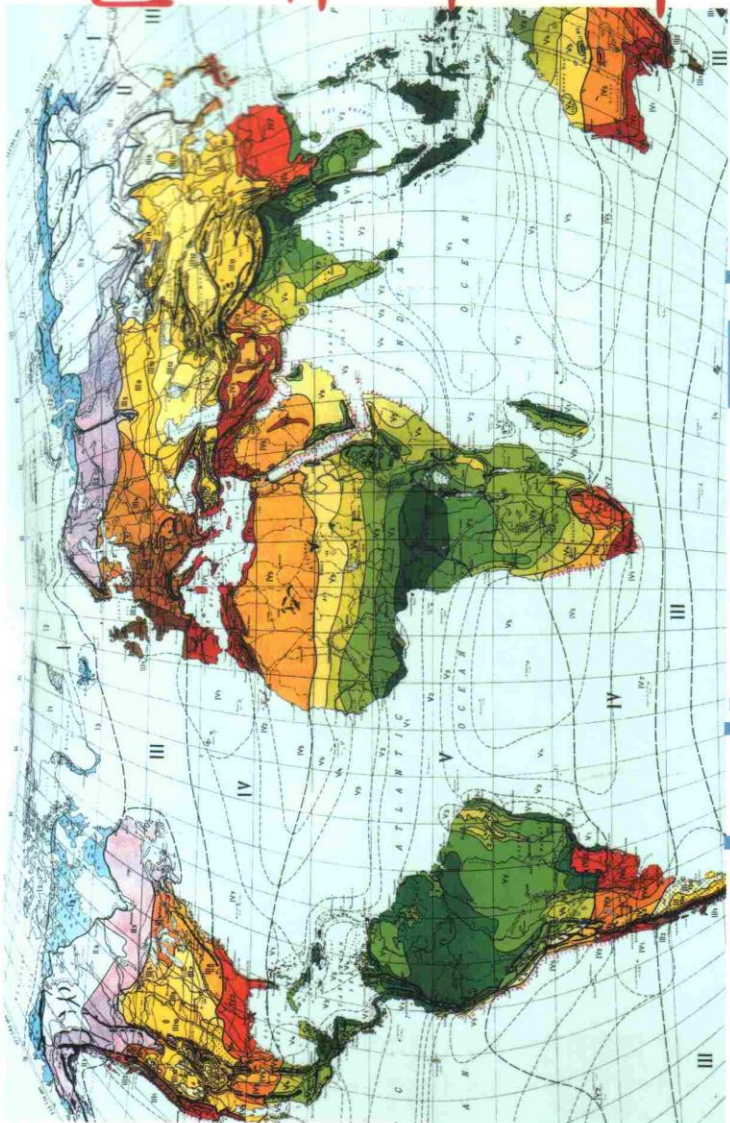
일본의 힘을 느끼다.



열대와 서구

이종찬

에덴에서 제국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

14세기 '임진동아시아전쟁'에서

19세기 '朝日修好條規'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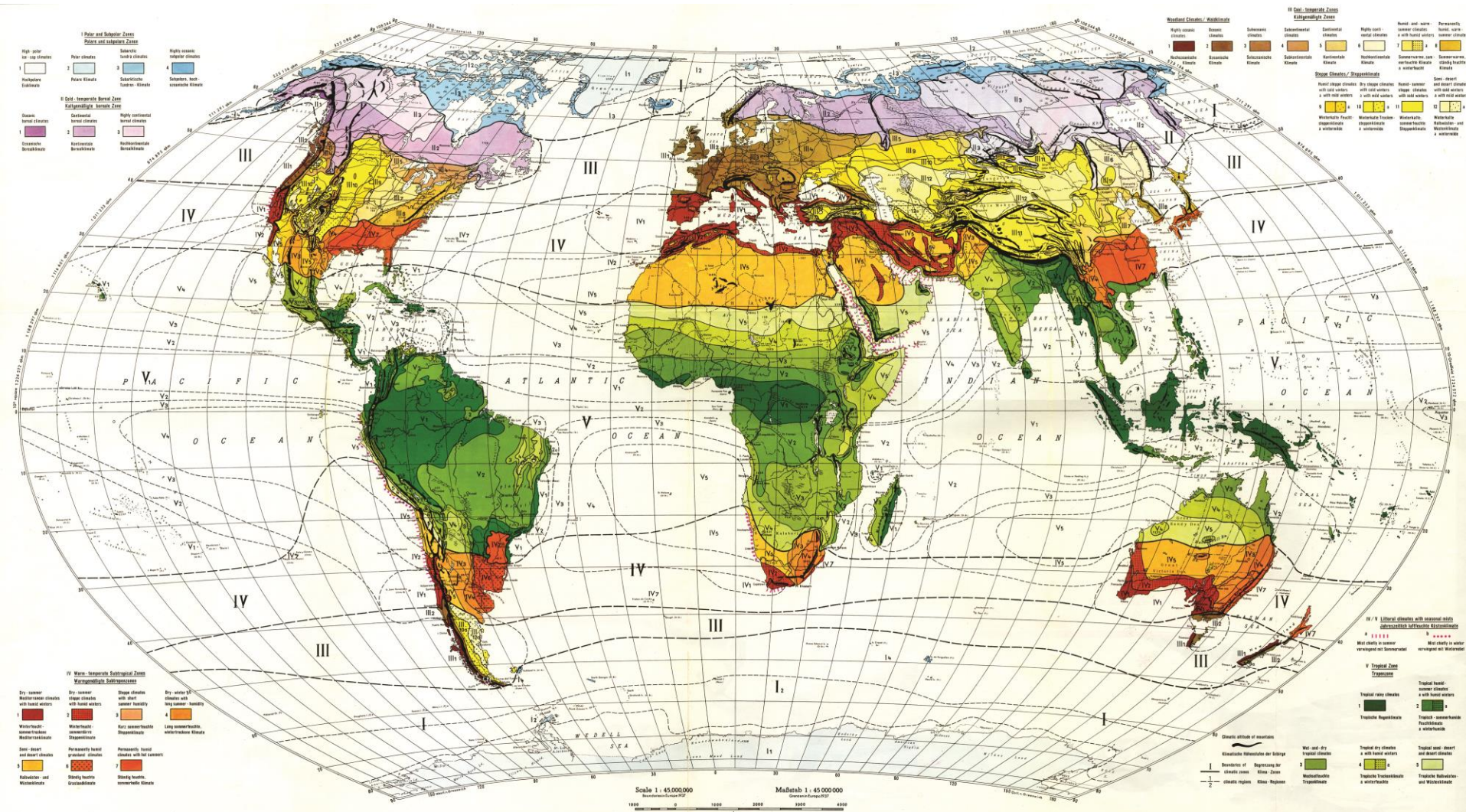
蘭學, 난초의 세계사적 운명?

‘난초’도 세계사의 관점에서??

=>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Rate’

Tropicalizing Japan in Global History

**Tropics in the Making of Western Identity
from the Late 18th Century through the
Early 19th Century**



일본과 서구적 근대의 문화융합

난학

=> 福沢諭吉[蘭學事始], '脫亞入歐'

=> 명치 유신 : '文明開化' '富國強兵'
'殖産興業'

II. Transculturation between Dejima, Batavia and Amsterdam

1. 中華的 세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도쿠가와 일본
 2. 열대의 박물학을 통해 중세 유럽에서의 청각 중심의 감각적 위계 질서를 시각 중심으로 바꿔갔던 네덜란드
- => 이 교차 지점에 열대 동남아시아의 전지구적 해양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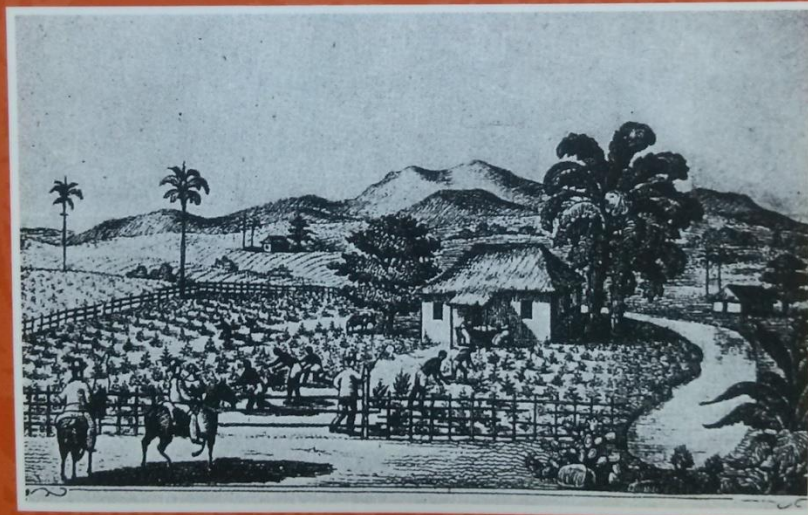
Tropicalizing Transculturation

From Fernando Ortiz,

Cuban Counterpoint: Tobacco and Sugar
(1940)

CUBAN COUNTERPOINT

TOBACCO AND SUGAR



BY FERNANDO ORT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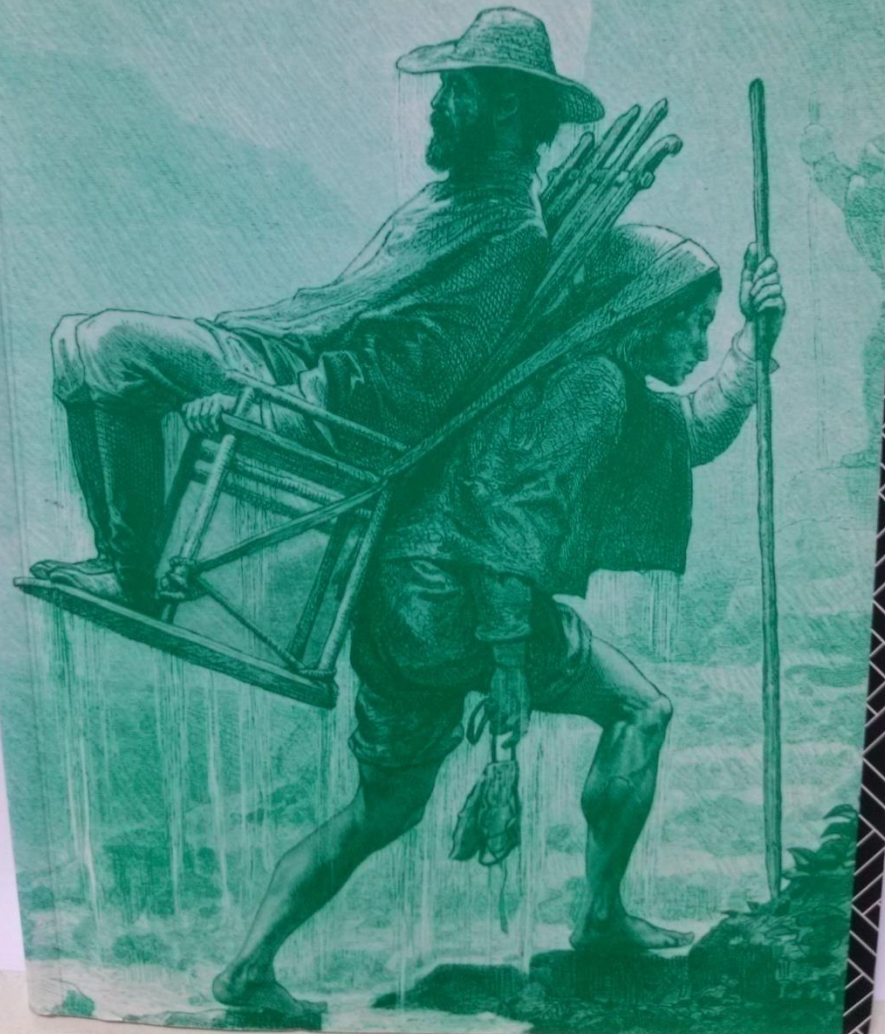
Introduction by Bronislaw Malinow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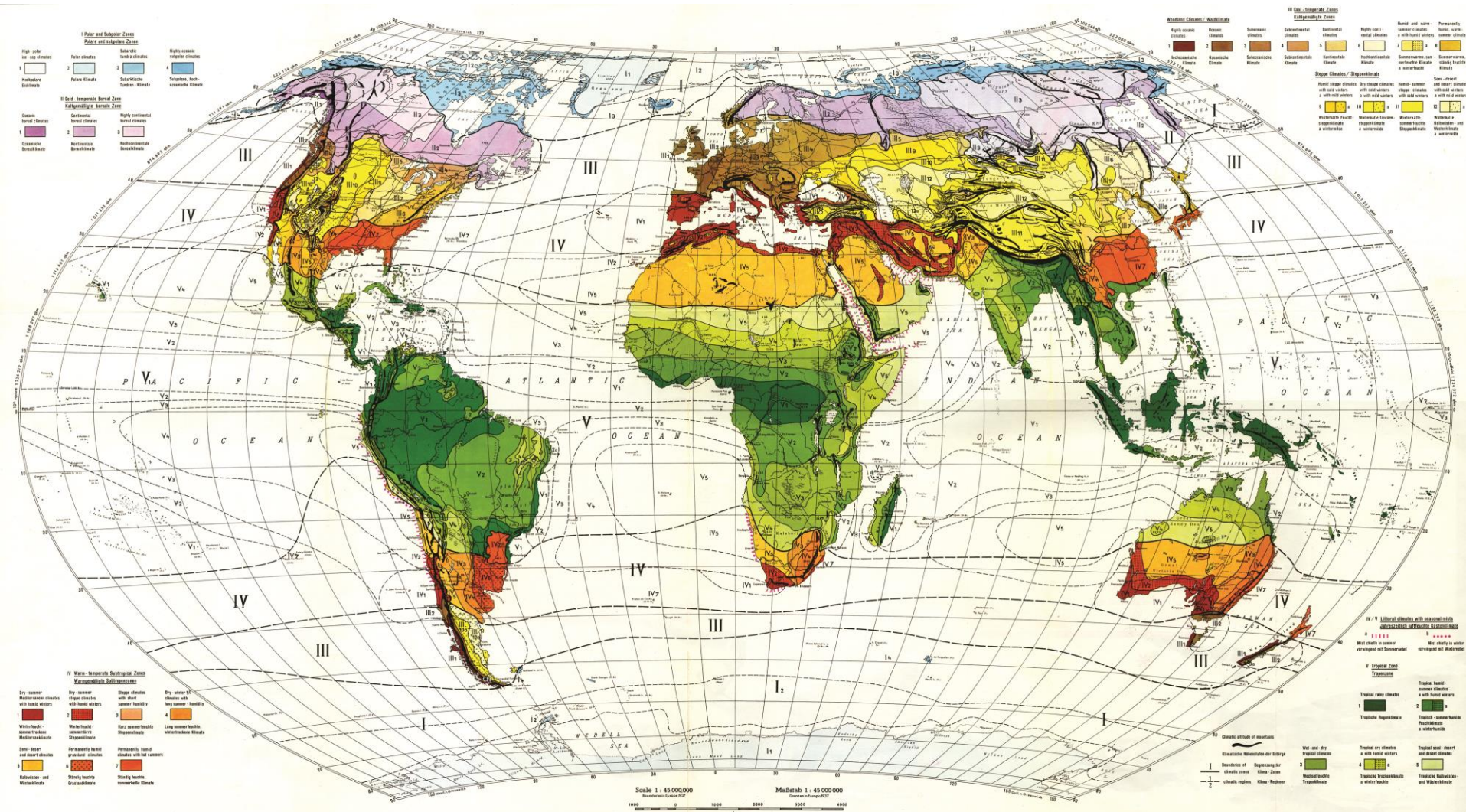
Tropicalizing Transculturation

To: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Mary Louise Pratt





Reading *Historical Anthropology* - **Resonance** bt. Colony and Metropole

Dirks, Nicholas B., ed., 1992, *Colonialism and Cultur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cGrane, Bernard, 1989, *Beyond Anthropology: Society and the Oth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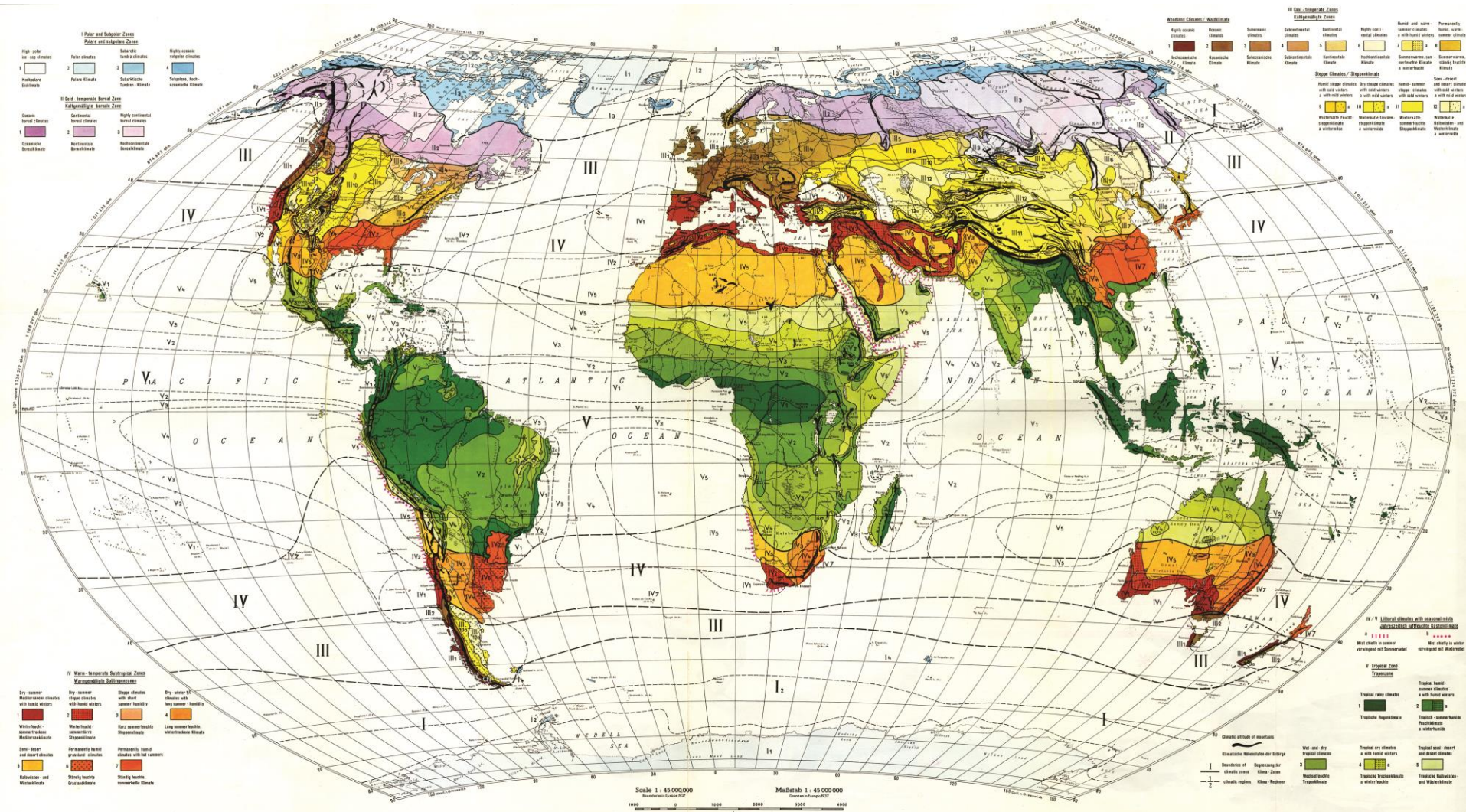
Pagden, Anthony, 1993, *European Encounters with the New Worl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Thomas, Nicolas, 1994, *Colonialism's Culture: Anthropology, Travel and Gover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II. 蘭學, 중화적 세계에서 서구적 세계로

Japan Connected to Carl Linnaeus' Voyage into Natural History





Visual Thinking vs.

한국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하나. 델프트의 문화 융복합 : 레벤후크 - 베르메르
- 스피노자 - 해군 - VOC

둘. 구체적인 物의 실증적 탐구: 히라가 겐나이 -
VOC 상관장 얀 크란스와의 만남 - <물류품즐>

셋. 몸의 시각성 : <解體新書>

Natural History of the Tropics

1. 도도네우스, <식물도감> - 열대 식물 분류의
실용성 => 칼 린네의 분류학 => 튜베리의
Flora Japonica
2. 진리truth와 非진리unthruth를 가늠하는 잣대

데카르트 & 렘브란트, 열대의 암스테르담

1. 예수회 교육을 통한 열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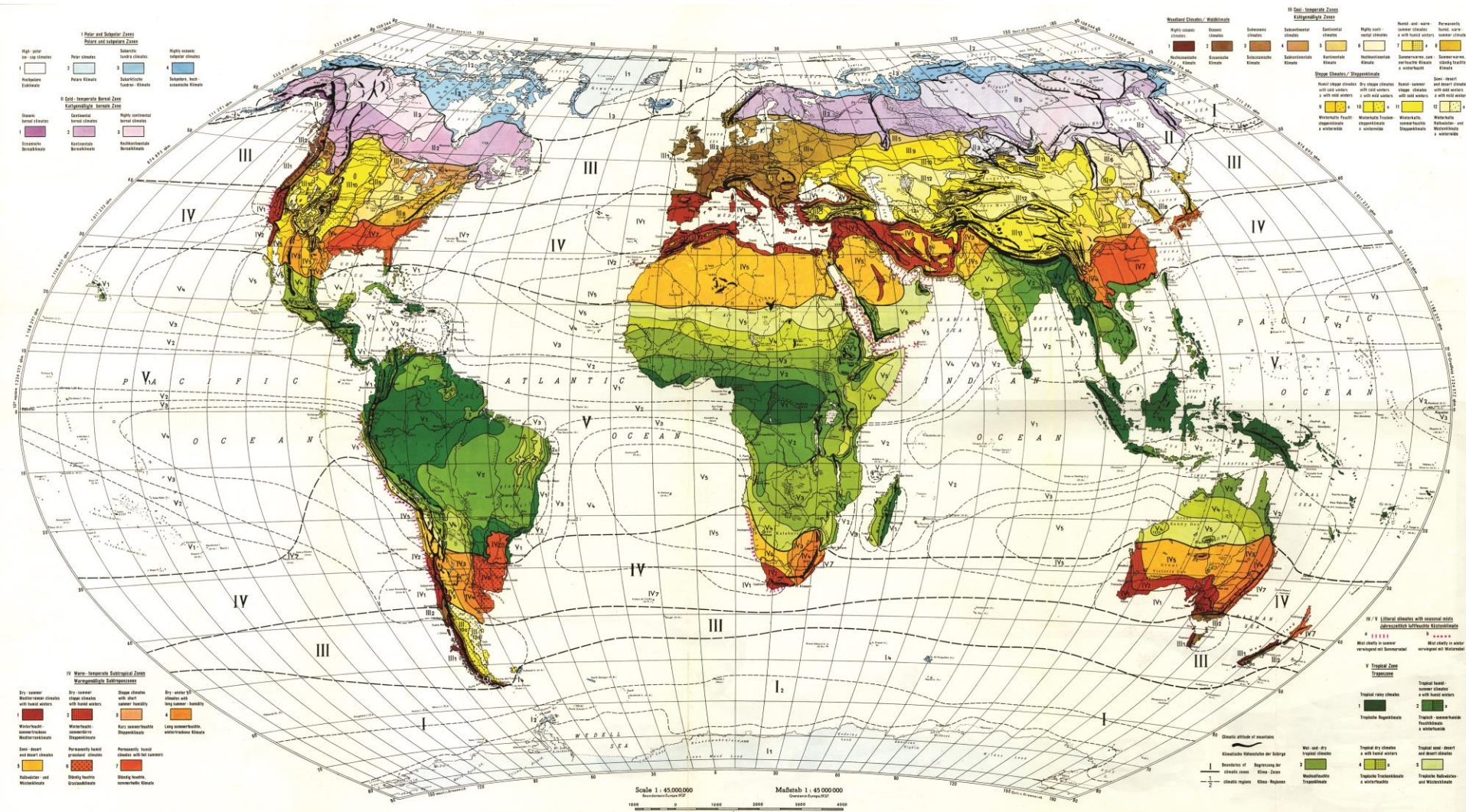
=> 회의론,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싹트다

2. VOC/WIC를 통해 열대에서 갖고 온 자연사에 대한 회화적 묘사

=> 렘브란트의 <틸프 박사의 해부학수업>

Japan Connected to the Dutch Maritime Network and the Spanish Galleon Trade

1. Silver/Copper 무역 : 스페인의 태평양 무역 항로 vs. 네덜란드의 동남아시아 항로
2. 무역 - 자연사 - 미술: 아키타 蘭畫
3. '자연의 경제'에서 '國富'로의 전환 :
Japan's Adam Smith



蘭學, 서구 - 열대 - 일본 사이의 문화융합

서구의 열대 자연사(Tropical Natural History)에 대한 시각적 공간화(Visual Spatialization) 또는 공간적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를 일본이 '무역'을 통해 만들어갔던 지식체계

난학의 지향점: 中華的 '사물의 질서'를 넘어서려면 역사지리적 상상력이 요청된다

1. **인구** : 杉田玄白(1733-1817), <解體新書>
 本多利明(1744-1821), <經世秘策>
2. **영토** : 林子平(1738-1793), <海國兵談>
3. **안보** : 佐藤信淵(1769-1850), <垂統秘錄>

일본, 中華的 세계와의 대결

1. 임진동아시아전쟁 - 청일전쟁 - 중일전쟁 -
- 동중국해 (尖閣諸島)
2. 安倍晋三 對 習近平

Tropicalizing Russian Threat to Japan

- 한국은 아직도 서구를 통해서 러시아를 판단한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1986 - 2015

“평화적 핵과 군사적 핵은 하나다.”

IV. 근대 일본

어떻게 일본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상을 받았는가?

'Translation' as *Transculturation*

세계 문명사의 두 가지 위대한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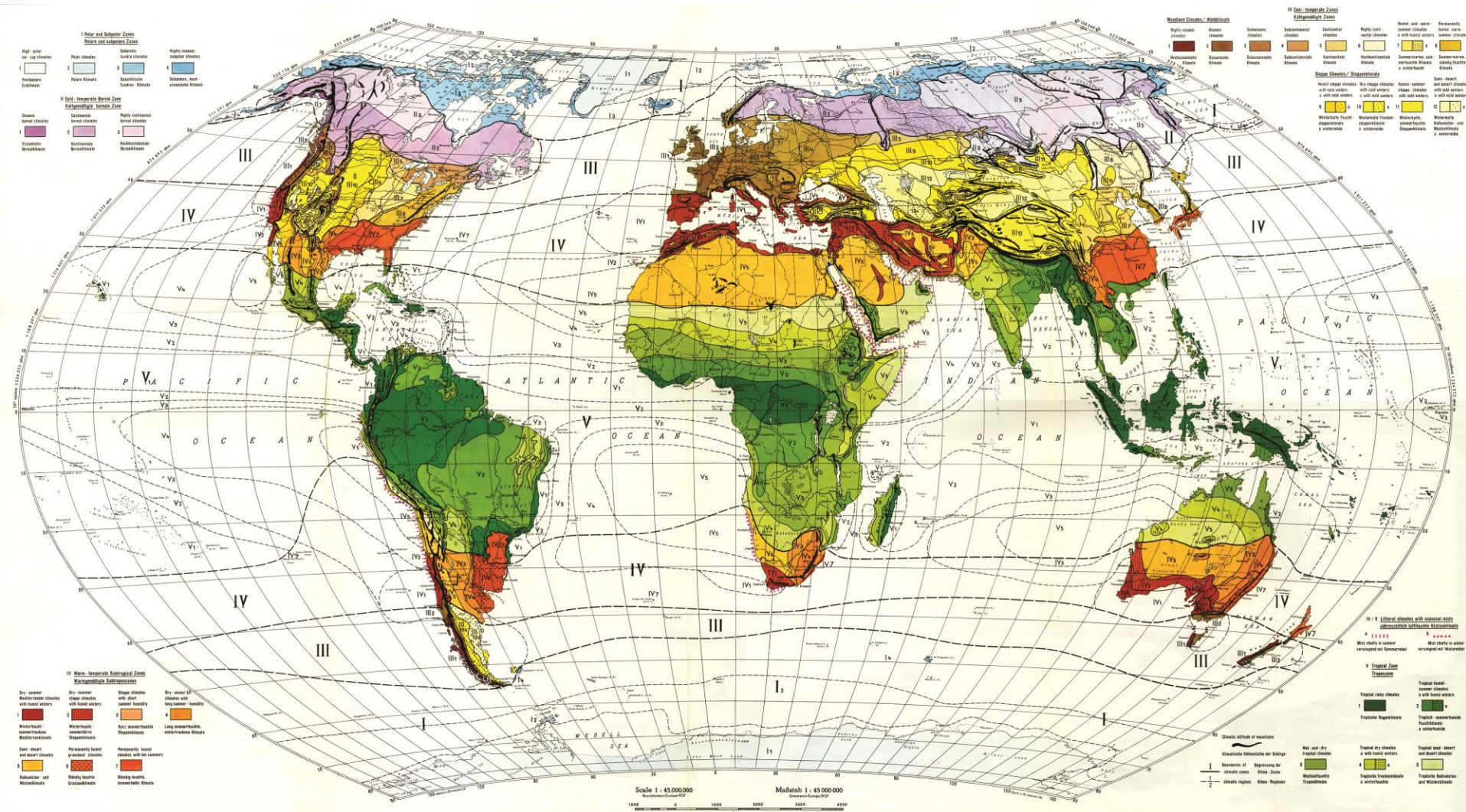
아랍의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 번역

일본의 유럽 문명 번역

Transforming the Essence of the Western Technology and Science into the Dutch Learning

Visual Calculation of the Tropics 'Camera Obscura'

의학, 지리학, 식물학, 광물학, 천문학,
군사학, 대수학, 농학,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日本 漢字'의 발명

和蘭語를 直譯하는 과정에서 일본 한자를 발명하다.

VS.

엔칭의 예수회 신부들이 중국 한자로 번역한 것을
조선 사대부들이 '朝鮮 西學'으로 수용하다.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

1. 한국

‘압축적 근대성’은 ‘역사적 보편성’에 어긋난다.

2. 일본

**일본의 문명적 특수성은 인류의 문명적 보편성
에 어긋난다.**

한국, 한국어, 한국인의 정체성

"언어는 존재의 집"

1. 梁啓超, <飲氷室自由書> - 한국어의
계보학적 기원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2. 현대 한국어
vs. 동아시아 문명권의 보편성

어떻게 일본 노벨상은 국립대학 연구자 또는
국립대학 졸업생들이 대다수인가

국가 중심의 지식체계

일본에서 의학이란 무엇인가?

醫術이 일본 문명사를 이끌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일본 문명의 선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醫學이다. 일본 문명의 역사에서 선구자는 의학으로, 理學, 化學, 工學, 軍事學 모두 醫學으로부터 나온다.”

－ 大隈重信, ‘清國開發の第一義’ <同仁>, 1906

일본의 국가중심적 지식 체계

“누구든지 의학의 권력을 잡은 자가 국가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다... 明治 이념이 난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학을 매개로 해서가 아니라 의학 그 자체가 중앙집권적이고 정치적이다.”

- 柄谷行人, <日本近代文学の起源>

근대 일본의 서구적 = 의학적 형성

北里柴三郎(1853-1931): Emil Adolf Behring
(Nobel Prize 1901)

後藤新平(1857-1929): Max Pettenkofer

森鷗外(1862-1922): Robert Koch (1905)

명치 일본의 '御雇 외국인'

1. 의학, 농업, 군사, 자연과학, 공학, 법률,
행정, 경제 분야, 예술과 교육 - 일본 정부
고용

2. 약 3천명

V. 한국

고려 : 조선 = 해양 : 대륙

18세기 조선? : “이미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장소 - 옌칭

이념 - 小中華

무역과 분리된 西學

예수회 신부의 漢譯

자연사 이미지 (vs. 고려 佛畵)

한국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

한국 : 일본 = 한국사 : 세계사

裕仁, 6살에 세계사를 白鳥庫吉에게 배우다

한국의 지식사회는?

1980년대 한국 '사회과학의 시대'

1990년대 '인문학의 위기'

2000년대 '이공계의 위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2010년대는 ??

한국의 대학은?

힘있고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책임은 없는
국립대학, 노벨상 하나 못받는 서울대학교를
국민은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가?

vs. 힘없고 자원도 없지만 책임만 있는
사립대학

한국은 아직도 조선 시대??

“해는 중국에서 떠서 중국으로 진다.”

=> “해는 미국에서 떠서 미국으로 진다.”

조선 성리학의 DNA를 갖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
세계와의 문화융합에 대해 열려 있는가?

노벨상 이전에

한국의 지식인은 미국적 사물의 질서,
중화적 사물의 질서를 넘어서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